

무주 당산리 산성 · 봉화유적 시굴조사 완료

전북지역 가야문화유산 발굴 · 정비사업 일환 추진... 봉화대 주변 부분 조성된 성벽 확인

무주군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무주 당산리 산성 · 봉화유적 시굴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전북 동부지역 유적의 성격의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게 됐다. 시굴조사는 전북지역 가야문화유산 발굴 및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군은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1년 무주 당산리 산성 · 봉화유적에 대한 현지검토를 실시한 결과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종합현장지 위치한 해발 400m의 야산 정상부를 둘러싼 석축과 봉화로 추정되는 석축시설을 확인했다.

2021년 10월에 실시한 정밀지표조사 결과 산의 능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3기의 봉화대(봉화주정지)와 봉화대 주변에 부분적으로 조성된 성벽(석축방호벽)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봉화대로 추정되는 동서 약 6.9m, 남북 약 7m의 정방형에 가까운 석축시설의 구조와 형태가 확인됐으며, 석축시설 아래로는 석축을 보강하기 위해 계단식으로 쌓은 보축부가 일부 남아 있다.

봉화시설의 축조는 거칠게 다듬은 석재를 허튼쌓기(크기가 다른 돌들을 쏘는을 맞추지 않고 불규칙하게 쌓는 방법) 방식으로 축조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상부로 갈수록 면적을 들여 쌓아 안정성을 준 점이 특징이다.

이번 시굴조사 과정에서 삼국~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소량 확인됐다.

지난 19일 학술자문회의에서는 봉화유적의 정확한 구조와 당시 봉화를 운영했던 이들의



무주 당산리 산성 · 봉화유적 시굴조사 모습.

생활시설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봉화유적의 성격을 규명하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간 무주를 일원에서 조사된 유적들에서는 시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백제 전래현에서부터 고려 공양왕 3년까지 행정치소로만 알려졌던 주계고성 터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기와편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주계고성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무주

대차리 고분군의 발굴조사(2018)에서는 신라유물들이 다수 확인됐다. 단순히 백제영역으로만 인식됐던 주계(무주를 일원)와 신라영역으로 알려졌던 무산(무풍면 일원)이라는 시대상에 대해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유적 주변이 무주읍과 남대천, 주계고성과 무주 대차리 고분군, 무주 용포리 노고산 봉수 유적과 인접하고 있어 당시 접경지역으로서 무주의 역사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관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

전북문화관광재단, 6월 3일~11월 25일 목 · 금 · 토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오는 6월 3일 전북예술회관 4층 공연장에서 관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의 막을 올린다고 밝혔다.

올해 브랜드공연은 2021년 전문가평가와 작품개발소위원회 자문을 바탕으로 작품 구성, 무대세트, 음악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감음향시스템(이머시브)을 도입해 업그레이드했다.

이에 따르면 작품은 기존의 이야기를 유지하지만, 서동과 선화의 사랑 이야기를 좀 더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제3의 캐릭터인 악역 '귀랑'을 추가했다. '귀랑'은 신라를 어둠에 빠뜨리는 야심가로서 서동과 선화의 대립 구도를 통해 극의 긴장감을 높이고, 둘의 사랑을 좀 더 애뜻하게 만들어 준다. 이에 올해 작품은 새롭게 추가된 캐릭터와 구성으로 강렬하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6월 3일을 시작으로 11월 25일까지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 · 토요일 오후 3시(70회)에 진행된다. 티켓 판매는 지난 30일부터 '티켓링크'와 '네이버티켓'에서 판매하고 있다.

브랜드공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00석을 오픈했으며, 티켓가는 전석 15,000원이다. 전북도민은 10,000원(33%)에 관람할



수 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올해 브랜드공연은 제작진과 배우들의 노력으로 한층 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작품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콘텐츠로서 '몽연-서동의 꽃'이 도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물 공개 구입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은 멸실 및 훼손되기 쉬운 민간소장 유물 · 자료 등을 공개적으로 수집하여 학술연구 · 전시 ·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동학농민혁명과 한국근대사 관련 유물들을 구입할 예정이다.

구입대상 유물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고문서, 고서적, 삽화 · 사진 등 소장 가치가 높은 유물 및 기타 재단에서 연구 · 전시 ·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대사(近代史) 관련 자료 등이다. 유물 및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수량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도굴품 · 장물 등의 불법유물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재단 양식의 유물매도신청서를 매도신청유물명세서 및 기타 제출서류 등과 함께 6월 17일까지 이메일(happy@1894.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입한 유물은 향후 번역 및 자료집 발간 등 학술 연구 · 전시 · 교육에 활용되며 가치가 높은 유물은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은=김대환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메타버스로 전 세계 즐겼다

제페토 CGV 월드맵 · 네이버NOW, 통해 12만 명 이상 접속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약 5만 명의 관객들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폐막한 가운데, 메타버스에서도 약 12만 명 이상의 글로벌 관객들이 함께 즐겼다는 소식을 전했다.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제페토 CGV 월드맵에서 최민영 감독의 <오토바이와 햄버거>, 박재현 감독의 <나랑 아니면>, 노경무 감독의 <파란겨인>, 송예찬 감독의 <마리아와 비운세>, 김창범 감독의 <역랑향상교육> 등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수상작 5편을 상영했다.

상영회 기간 동안 국내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필리핀, 인도,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브라질 등 전 세계 다양한 나라의 많은 관객들이 참여해 12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전주국제영화제를 함께 즐겼다. 영토의 경계 없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계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페토와의 콜라베이션은 축제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실험적인 시도였으며,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통해 한국 관객뿐 아니라 해외 관객들을 유입했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영화제와 영화제 상영작을 홍보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번 상영회로 인해 메타버스에서도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영화 상영 채널을 확장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네이버NOW에서도 지난 7일부터 9일, 11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네이버NOW에서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 를 진행해, 제페토에서 상영한 작품들과 동일하게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부분 수상작 5편을 스트리밍했다. 뿐만 아니라 영화제 기간 동안 개막식과 전주북독, 마스터클래스 등 프로그램 이벤트를 온라인 생중계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상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대나무 장인 시연 · 체험 진행

대나무가 채상으로 화려하게 변신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장인의 실시간 시연과 체험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은 국가무형문화재 장인의 '채상공예 시연'과 '채상 컵받침 만들기 무료체험' 행사를 오는 6월 3일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이수자 김승우 장인이 직접 선보인다. 채상장이란 곧은 대나무를 종이처럼 얇게 떼내 다듬고 천연 염료로 염색한 대를 재료로 죽세품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이번 채상장 시연은

가로세로 엮는 방식의 한 올 뜨기 기법이다. 색깔이 염색한 대를 마치 촘촘한 그물을 짜듯 엮어 만드는 기법으로, 한평생 대를 이어온 장인의 장수집과 정교함을 엿볼 수 있다.

장인의 시연이 끝나면 직접 채상을 체험할 수 있는 '채상 컵 받침 만들기' 시간으로 이어진다. 준비된 체험 키트를 이용해 대를 엮고 불이켜 나만의 컵 받침을 만들 수 있다.

시연과 체험은 전주공예품전시관 다목적관에서 3일 오후 1시 30분과 3시 두 번 진행된다. 상인을 대상으로 각 시간별 선착순 30명을 모집해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윤상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제1기 프렌디 스쿨 성료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2022년 제1기 프렌디 스쿨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센터는 함께하는 육아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특히 일하는 아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5월 둘째주 금요일부터 20일, 27일, 28일 4회기로, 일과시간 이후인 저녁 7시에 교육을 진행했다.

전정희 센터장은 "성평등 문화 조성과 가정 내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됐다"며 "하반기에도 제2기 프렌디 스쿨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